

## 4월 2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2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대출부실 우려’ 뉴욕 급락</p>	<p>6주 연속 랠리에 따른 부담 속에서 은행들의 대출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차익실현의 빌미가 되며 뉴욕 주식시장이 급락세로 마쳤음. 금융주가 큰 폭으로 떨어져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유가가 폭락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도 미끄러졌음.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실적은 월가 전망을 넘어섰지만 경기후퇴(recession) 심화로 신용카드 등 대출 부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오라클의 선 마이크로시스템즈 인수합병(M&amp;A) 소식이 전해졌지만 차익실현 욕구와 악재에 묻혔음. 미국의 향후 3~6개월 뒤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경기선행지수도 하락하며 경기후퇴 국면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7,841.73으로 전일대비 289.60포인트(3.56%)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608.21로 64.86포인트(3.88%) 내렸음. 대형주 중심의 S&amp;P500 지수는 832.39로 37.21포인트(4.28%) 밀려났음.</p>
<p>경기선행지수 하락..`후퇴 여름까지 간다`</p>	<p>미국의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는 3월 경기선행지수가 0.3% 하락했다고 밝혔음.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0.2%도 하회한 수준. 앞서 2월 지수는 -0.2% 하락했었음. 주요 10개 항목 가운데 주가와 건설허가 등 총 6개 항목이 하락했음. 총통화량, 소비자 기대 등 3개 항목은 상승했고, 소비재 주문은 보합에 머물렀음. 전문가들은 치솟는 실업률과 여전히 타이트한 신용 여건 등으로 경기의 후퇴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p>
<p>유가 8.8% 폭락</p>	<p>국제 유가는 경제 우려와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9% 가까이 폭락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4.45달러(8.8%) 떨어진 45.88달러로 마쳤음. 이는 지난달 11일 이후 최저치. 낙폭은 지난달 2일 이후 최대 폭임.</p>
<p>국내주식펀드 닷새째 감소..</p>	<p>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으로 전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전거래일 대비 1,126억원 감소한 139조36억원을 기록. 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1,126억원 줄어든 84조9,635억원을 기록한 반면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64억원 증가한 54조6,401억원을 나타냈음.</p>

제목	주요 내용
삼성전자, 1Q 영업손실 5,000억원 예상	모건스탠리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핵심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 9,400억원 영업손실에 비해 개선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 추정치가 최근 몇 주 동안 영업손실 4,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으로 바뀌었지만 낸드 플래시 부문의 최근 강세를 고려해도 손실 추정치가 낮다"며 "우리는 5,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한다"고 했음.
김쌍수 한전 사장 "올해 9% 전기요금 인상 추진"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올해 17.7%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정부에 9%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조 9,000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도 2조 7,000억원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기요금 인상 없이 자구노력만으로는 만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 그는 "유가 40달러 이하, 환율 1,100원 이하가 되어야 적정수준인데, 올해내에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유로, 달러대비 `한달 최저`..ECB 내홍	20일(현지시간) 미국 외환시장에서 유로화가 달러대비 1개월래 최저치로 폭락. 유럽중앙은행(ECB)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여부를 둘러싸고 이견이 엇갈리면서 정책 대응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유로화 약세의 배경. 웰스파코의 바실리 세레브리야코프 외환 전략가는 "ECB의 자세와 글로벌 경제 리스크가 모두 유로에 하향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유로-달러가 연말까지 1.20달러선을 뚫고 내려설 것"이라고 전망.
中 상장기업 1분기 실적 `바닥` 친다	로이터의 집계에 따르면 중국 1,600여개 상장회사들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 줄어들 것으로 관측. 상장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이달 중순 이후에 집중될 전망이다. 하지만 올해 남은 분기 동안 상장기업들의 순이익 감소율은 10%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고, 올해 전체로는 15%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
중국 "미 국채 못믿겠다..대신 원자재 매입"	최근 이뤄진 중국의 원자재 매입이 단순한 `재고비축`이 아닌 `외환보유고 다원화`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 지난 16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라프는 중국이 미 국채를 매입하는 대신 이제 구리 등 금속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 실제로 중국 국가물자비축국(SRB)은 최근 몇개월 동안 구리와 기타 산업용 금속을 매입해 왔으며, 티타늄과 인듐, 로듐, 프라세오디뮴 등 희소금속도 매집.시장 관계자들은 중국이 달러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자재를 매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체감.
토요타, 국내생산 31년래 최소 전망	일본 토요타자동차의 이번 회계연도 국내 자동차 생산이 280만대에 그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 21일 보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토요타의 국내 차 생산이 300만대를 밀던 것은 31년만에 처음.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